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1-6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영원하다. 완전하고 유일하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답을 찾아야 한다. 영원한 답이고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항상 잡아도 된다.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답은 무한정 깊다. 아무리 잡아도 끝까지 간다. 오늘도 언제든지 잡아도 된다. 지난 주에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예라고 했다. 무한정 예이고 절대로 아니요는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 이 답 없으면 인생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언약으로 살면 되도록 하셨다. 언약을 위하여 살면 큰 인생된다. 오늘도 이 언약과 관련된 말씀 받으러 왔다. 한 주간 잡고 갈 말씀이 있기 바란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역전시킨다. 인생도 역전시키는 전환점이다. 문제 역전시켜서 축복으로 만든다. 그것을 계속 시대적으로 간증한 것이 성경이다. 다시 언약 잡기 바란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1.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는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다. 주님의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 입사귀는 절대 마르지 않는다. 주님의 보혈,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냥 진리이다. 믿으면 된다. 언약으로 잡은 자는 전부 다 이 약속대로 된다. 70억 인구가 다 잡으면 전부다 그렇게 된다. 70억 인구가 전부다 구원 받는다면 전부다 다 부자되어버린다. 70억 인구가 다 인생 정복해버린다. 참 놀랍다. 인구 늘어나는 것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지구의 인구가 7천억이 되어도 가능하다. 조건은 그때도 똑같다.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인구가 7천 억이나 되는데, 어디서 먹을 열매가 어디있냐? 그것은 사람 생각이다. 햇빛이 있고 물이 있고, 시간표, 철을 따라, 시간표 왔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인생 나무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피조물은 모양은 달라도 원리는 같다. 주님의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지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지 않는다. 입사귀 마르지 않는다. 평생. 항상 힘나고 살아 있다. 푸른 입사귀가 된다. 반드시 때를 따라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냥 이 생수를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절이 온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시간표가 오는 것이다.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그리스도이다. 이 언약의 피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신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다. 내가 생수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언약의 피를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물을 주신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입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삼직 누리면 된다. 그 외에 성경의 많은 단어들이다. 그거 다 하면 더 좋다. 이러다가 우리가 24에 도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버린다. 나의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 없이 세계화 되어 버린다. 지금은 세계화 안되면 큰 성공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쭙잖은 것도 유튜브 올려버리면 세계화이다. 한국말도 챗GPT로 영어로 바꾸면 1초만에 바꿔 올리면 세계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잘 되도록 4차 산업 만든 것이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올라타고 공짜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과 통하면 더 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큰 인생을 살았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렸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제자를 세웠다. 왜냐면 더 깊이 하나님과 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 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시작은 항상 그리스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이 온다. 사명이 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깊은 기도가 올 것이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부다 안디옥교회가 되는 것이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원이다. 전부다 안디옥교회 되는 것이다. 선교 교회가 되고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전부 다 되는 것이다. 중대한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될 것이고.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서는 것이다. 언젠가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는 드로아의 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가 언약이 되는 것이다. 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이 되는 것이다. 니가 미국 앞에 서야 하리라. 니가 남미 끝까지 가야 하리라. 니가 땅 끝까지 가야 하리라. 언약이 되는 것이다. 되고 안되고는 다음 문제이고 들어왔으면 즉시 정복이다. 24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로마가 언약이 되면 인생 정복한다.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나면 내 인생 정복하게 되어 있다. 성경적 전도 일어날 것이다. 많은 전도를 하지만 결국 성경적 전도로 현장을 정복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도와 선교에 눌러 사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면 가지 않아도 정복한 상태가 된다. 메시지 자주 듣는다. 가기 전에 답 난다고. 미리 정복하는 것이다. 흥분할 필요 없다. 눌리는 일은 전혀 없다. 전도와 선교를 정복하는 것이다.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24, 25, 00, 우주를 살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언약이다. 그리스도 언약은 모든 것이다. 그냥 기초가 아니다.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의 권세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제자가 아니고 망대이다. 하나님의 자녀, 망대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전세계를 향해, 남미끝까지 미국을 향하여 선 하나님의 망대같은 제자, 허황된 생각인가? 공상인가? 아니면 언약인가? 이 차이가 인생의 응답의 차이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다. 말씀에 답 난 사람에게 무조건 응답하신다. 내 안에 신앙고백이 내 인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다. 하나님은 밖을 보지 않고 안을 본다. 내 아들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엇이냐? 약속의 피가 뭐냐? 여기서 인생 결판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냐? 이 대답을 베드로가 바로 했다. 여기에 대답만 바로 해도 아주 놀라운 응답이 온다. 땅에 있는 모든 문을 여는 천국 열쇠 약속이 온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수 없는 권세가 이 대답에서 온다. 내 영과 내 인생은 반석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대. 이 것이 이 대답에서 온 것이다. 오늘도 대답을 바로 하면 된다. 여기서 출발, 24로 가는 것이다. 777로 가는 것이다. 777 안에서 그리스도 약속의 피를 누려야 한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착각

에 빠지기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망대, 전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오늘 메시지를 착각으로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전부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전세계를 향한 망대, 나 없으면 전세계 다 죽는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진짜로 언약되기 바란다.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받은 은혜가 살아 있기 바란다.

2. 말씀을 묵상하는 자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기 때문이다. 말씀 그대로 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써 놓은 그대로 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답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다르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런 저런 다른 결정들이 주위에 올 수 있다. 선택하면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아니면 지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래야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등 많은 것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본문 1-2절은 유명한데,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잡는다는 말이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바란다. 어쩌다가 감정이 상해서 나도 감정이 상해서 싸울수 있다. 그러나 속은 말씀을 잡기 바란다. 내가 너와 감정 섞인 소리로 싸우지만 본래 나는 아니라는 것이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2등이라도 한다. 1등은 싸우지도 않는 것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필요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장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악인의 꾀를 좇아 가겠는가? 누가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있겠냐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수 있는가? 그것이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입사귀가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니가 만일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너에게 영권을 줘서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를 정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정복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넘어서야 한다. 사람에게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가? 초월이라는 말이 그 말이다. 비행기 타듯이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세상을 인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스스로 이기고 말씀 묵상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는가? 니가 너의 죄를 해결하고 와서 예수를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는가? 그냥 믿으면 죄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니가 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묵상하면 자동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이다. 죄인이고 오만한 자고 다 넘어서게 되어 있다. 정복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입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면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한다. 아주 틀림 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이에 대한 수많은 예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바울은 시대를 살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그 전에는 기독교 문화가 없었다. 바울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다. 그가 정리한 복음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다. 그가 현장에서 만들어낸 성경적 전도 전략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에게는 복음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소원 하나 있다. 그것이 전도이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확실하게 답을 줬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말씀 받고 새로운 다른 인생이 되었다. 다윗의 시편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예수님보다 천년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했다. 그에게는 결정적인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셨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주셨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 시편의 반을 기록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언약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과 영적인 성장이 있기 바란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전 세계의 망대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안해도 된다. 매일 할 것도 없다. 매일 하면 더 좋다. 24하면 더 좋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아놓고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이끌고 가신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잊어 버린다 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능하시므로 괜찮다. 단,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하고 예배에 오는 것이다. 그릇이 되고 체질이 되면 말씀을 계속 받게 된다. 이번 북미주 산업인대회에서도 받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진짜 기도했으면 정말 받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답을 받았을 수도 있다. 큰 대회는 큰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게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 말씀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들어오는데 묵상이 안 될수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는 것이다. 근본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훈련 메시지, 본부 메시지,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한다. 그 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받아야 한다. 인생 살아나게 되어 있다. 정복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틀림 없다. 오늘 말씀도 그렇다. 너는 내 율법을 묵상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것 아니냐? 시냇가에 너의 인생을 내가 심어줄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너의 입사귀가 마르는 일이 없다. 평생. 그러면 끝이다. 시편 1편은 아주 유명하다. 많은 사람이 외우기도 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성경은 책 이름이 약속이다. 옛날 약속, 지금 현재 약속. 약속이다. 오늘 약속한 것, 다시 한번 요약하면 너가 만일 내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너를 생명수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입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을 평생 보게 될 것이다. 너의 맘대로는 안된다. 그러나 내가 계속 시절을 보낼테니까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는 풍성하고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무엇에도 신경쓰지 말아라. 오직 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일에만 너의 마음을 담아라. 오늘 너에게 하는 약속이다. 영원한 진리이므로 평생을 두고 잊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약속한 그대로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다. 잊으면 안된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므로 약속하신 축복 끝까지 받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계 복음화 하자. 남미 끝까지, 미국 끝까지. 하나님이 여신 땅 끝까지. 그리스도.